

고등학교 《중국어 I》 개정 교과서의 변화와 정체*

— 발음 및 네 영역을 중심으로

김미순·황진영**

<목 차>

1. 서론
2. '중국어 I' 교육과정과 교과서 《중국어 I》 소개
3. 고등학교 《중국어 I》 개정 교과서 비교 분석
 - 3.1 발음의 편제 순서와 내용
 - 3.2 네 가지 영역 간의 편제 순서와 내용
4. 결론

1. 서론

국내 고등학교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편찬된다.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하여 크게 세 차례에 걸쳐 개정 고시되었는데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서 역시 교육과정의 개정 고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출판되었다.

고등학교 교과서 《중국어 I》의 경우 2002년에 '7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6종 교과서가 개정 출판되었다. 이어서 2012년에 '2007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9종 교과서가, 2014년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5종 교과

* 이 연구는 201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韓國外國語大學校 教育大學院 中國語教育專攻 副教授 / 韓國外國語大學校 教育大學院 中國語教育專攻 碩士生

서가 2년 간격으로 연이어 개정 출판되었다. 그리고 올 2018년에 다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11종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매번 개정 교과서가 출판될 때마다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과서의 장단점을 분석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대부분 동일 연도에 출판한 교과서들을 비교 분석한 연구로, 공시적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최주희, 2002; 박성애, 2002; 배선영, 2006; 김민주, 2007; 김행신, 2009; 이경아, 2009; 김미순, 2015; 임봉조, 2016). 이러한 연구는 더욱 좋은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최근 6년 사이에 중국어 교과서가 무려 세 차례나 거듭하여 개정 출판된 이 시점에서 과연 교과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즉 개정 전 교과서의 장점은 고수하고 단점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지, 혹은 잘못된 지식이나 교수·학습 방법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은지 통시적 관점에서 그 전반적인 개정 흐름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출판된 4가지 개정판의 《중국어 I》—총 31종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통시적 관점에서 그 변화와 정체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하여 발음과 네 가지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편제 순서와 내용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한다.

2. '중국어 I' 교육과정과 교과서 《중국어 I》 소개

교육과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7차 교육과정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개정 고시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교과서가 편찬되었다. 이에 본고는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기에 앞서, '중국어 I' 교육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중국어' 교과목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중국어’는 선택 과목으로서, 외국어 교과에 해당하며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뉜다. 보통 교과는 다시 일반 선택 과목인 ‘중국어 I’과 심화 선택 과목인 ‘중국어 II’로 나뉜다. 일반 고등학교는 대부분 중국어의 기초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중국어 수업’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중국어 I’ 교과목 수업을 지칭한다.

‘중국어 I’ 교육과정을 보면 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¹⁾까지 그 구성 체제 및 내용은 기본적으로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세부 내용이 일부 가감되었다.

우선 교육과정의 구성을 보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예로 들면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으로 나누어 ‘중국어 I’ 교과목을 소개한다(교육부, 2015: 249-260). 7차 교육과정부터 현 교육과정까지 소개하는 항목은 거의 유사하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국어 I’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 250).

‘중국어 I’ 과목은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며, 중국 문화의 이해를 통해 타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다. 또한 ‘중국어 I’은 ‘중국어 II’ 과목을 학습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과목이다.

7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제시한 ‘중국어 I’의 성격을 보면 상술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능력과 외국 문화 이해를 통한 세계 시민 의식 함양 외에, 중국어로 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을 중국어 교과의 중요한 역량으로 강조하였다. 이에 교과목의 목표에 기존의 교육과정과 달리, 다음과 같이 ‘다’항을 추가하였다(교육부, 2015: 250).

1)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1997: 2007: 2011: 2015 참조.

- 가.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나. 중국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중국 문화와 우리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균형 잡힌 태도와 자세를 기른다.
 다.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어 및 중국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교과목의 목표 중 ‘가’항과 ‘나’항은 기존의 교육과정과 유사하므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 있어서 정보 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내용이 일부 추가되었다.

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개정 사항에 맞추어 고등학교 교과서도 개정 출판되었는데 7차 교육과정 이후 지금까지 출판된 《중국어 I》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

표1.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서 《중국어 I》

7차 교과서		07 개정 교과서		09 개정 교과서		15 개정 교과서	
구분	저자	구분	저자	구분	저자	구분	저자
A	강식진 외 2인	A	김난미 외 2인	A	모해연 외 4인	A	김명화 외 3인
B	박덕준 외 2인	B	박덕준 외 4인	B	신승희 외 5인	B	김성철 외 7인
C	송창기 외 1인	C	박용호 외 5인	C	심형철 외 5인	C	박용호 외 5인
D	이재돈 외 2인	D	박홍수 외 3인	D	이종민 외 6인	D	신승희 외 4인
E	임승규 외 1인	E	심형철 외 4인	E	정상률 외 4인	E	심형철 외 5인
F	한무희 외 1인	F	우인호 외 3인			F	유성진 외 6인
		G	임승규 외 4인			G	이기훈 외 7인
		H	최규발 외 2인			H	이선희 외 4인
		I	최재영 외 3인			I	이종민 외 5인
						J	임승규 외 4인
						K	최병권 외 6인

2)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교과서를 지칭할 때는 교육과정에 따라 약칭으로 지칭한다. 7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편찬한 교과서는 ‘7차 교과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은 ‘07 개정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09 개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15 개정 교과서’로 지칭한다. 또한 하나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편찬한 교과서 간의 구별을 위하여 대표저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알파벳으로 지칭한다. 예를 들어 강식진 외 2인(2002)의 경우 ‘7차 A교과서’로, 김난미 외 2인(2012)는 ‘07 개정 A교과서’로 지칭한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매번 개정 교과서가 출판될 때마다 그 수도 다르고 저자군도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더 좋은 교과서를 편찬하고자 하는 저자의 목표는 동일할 것이다. 개정 교과서는 이전 교과서의 미흡한 점을 수정 보완하고 좋은 점은 그대로 계승하여 편찬되어야 한다. 특히 표1을 보면 동일한 대표저자가 여러 차례 교과서 편찬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전 교과서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더욱 좋은 교과서를 편찬하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네 차례에 걸친 개정 교과서의 편찬 흐름이 과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 고등학교 《중국어 I》 개정 교과서 비교 분석

본고는 교과서 내 발음편과 매 단원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가지 영역에 대하여 통시적 관점에서 그 변화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정체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3.1 발음의 편제 순서와 내용

《중국어 I》의 구성을 보면 단원을 시작하기에 앞서, 중국어 발음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는데 중국어의 성모, 운모, 성조 등이 소개된다. 본 절에서는 성모, 운모, 성조의 편제 순서 및 그에 따른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교과서 내 성모, 운모, 성조의 편제 순서를 살펴보자. '7차 교과서'부터 현 '15 개정 교과서'까지의 편제 순서를 차례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7차 교과서'의 발음 편제 순서

구분	편제 순서	교과서
1	성모 → 운모 → 성조	A, B, C, D, F
2	기본 운모 → 성모 → 결합 운모 → 성조	E

표3. '07 개정 교과서'의 발음 편제 순서

구분	편제 순서	교과서
1	성모 → 운모 → 성조	F, H
2	성조 → 성모 → 운모	A, E, G, I
3	성조 → 운모 → 성모	C, D,
	성조 → 운모Ⅰ → 성모 → 운모Ⅱ	B

표4. '09 개정 교과서'의 발음 편제 순서

구분	편제 순서	교과서
1	성모 → 운모 → 성조	D
2	성조 → 성모 → 운모	A, C
3	성조 → 운모1 → 성모 → 운모2	B, E

표5. '15 개정 교과서'의 발음 편제 순서

구분	편제 순서	교과서
1	성조 → 성모 → 운모	A, B, E, G, K
2	성조 → 운모 → 성모	C, H
	성조 → 운모1 → 성모 → 운모2	D, F, I, J

'7차 교과서'부터 현재 '15 개정 교과서'의 발음 편제 순서를 하나의 표로 정리 비교하면 그 변화가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표6. 개정 교과서의 발음편 편제 순서

구분	편제 순서	교과서				합계
		7차	07개정	09개정	15개정	
1	성모 → 운모 → 성조	5	2	1	·	8
2	단운모 → 성모 → 복운모 → 성조	1	·	·	·	1
3	A 성조 → 성모 → 운모	·	4	2	5	11
	B 성조 → 운모 → 성모	·	2	·	2	4
	C 성조 → 단운모 → 성모 → 복운모	·	1	2	4	7
		6종	9종	5종	11종	31종

교과서 내 발음의 편제 순서는 성모를 제일 먼저 제시한 경우(표6의 1번), 운모를 선두에 제시한 경우(표6의 2번), 성조를 선두에 제시한 경우(표6의 3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 성모를 제일 먼저 제시한 경우를 보자. '7차 교과서'의 경우 6종 교과서 중 대부분이 '성모→운모→성조'의 순서로 편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제 순서는 '07 개정 교과서'에서는 9종 교과서 중 2종이, '09 개정 교과서'에서는 5종 중 단지 1종 교과서만이 채택하였다. 그리고 '15 개정 교과서'에 이르러서는 11종 중 어떠한 교과서도 더 이상 이러한 편제 순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둘째, 운모를 제일 먼저 제시한 경우를 보자. 7차 교과서에서 1종 교과서(표 6의 2)만이 운모, 그 중에서도 단운모를 성모 앞에 편제하였다. 이후로도 이러한 편제 순서를 채택한 교과서는 더 이상 없다.

셋째, 성조를 제일 먼저 제시한 편제 방식을 비교해 보자. '성조'가 '7차 교과서'에서는 맨 뒤에 편제된 반면, '07 개정 교과서'부터는 대다수의 교과서가 '성조'를 맨 앞에 편제하였고 '15 개정 교과서'에 이르러서는 11종 교과서 모두 성조를 제일 먼저 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통시적으로 봤을 때 교과서 개정 상의 큰 변화로서 좋은 변화라 할 수 있겠다.

중국어는 다른 언어와는 달리 성조가 있어야만 음절을 이룰 수 있고 성조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성조'를 제일 먼저 편제한 것은 중국어가 성조 언어라는 특색을 고려한 편제 방식으로서 교과서 개정에 있어서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맹주억(1998: 15)도 한국 학생들에게 발음을 가르칠 때 성모, 운모, 성조 중에 '성조'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성조가 한국어에는 없고 중국어에는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

그런데 성조를 맨 앞에 편제한 경우를 보면 성모와 운모의 편제 순서는 여전히 일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편제 순서를 보면 크게 '성조→성모→운모(표 6의 3A)'와 '성조→운모→성모(표6의 3B와 3C)'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성모와 운모 중 어느 것부터 편제하여야 할 것인가?

중국어는 '성조+운모'로 음절을 이룰 수 있으나 '성조+성모'로는 음절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유의미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성조→운모→성모'의 순서로 편제하여야 할 것이다. 맹주역(1998: 15)도 성모와 운모 중 운모를 먼저 가르칠 것을 제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교과서들을 보면 여전히 적지 않은 교과서가 '성조→성모→운모'의 편제 순서를 채택하였다. '15 개정 교과서'에서도 거의 반에 다다른 5종 교과서가 이러한 순서로 편제하였다. 이는 개정 교과서에서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정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운모의 구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표6의 2와 3C를 보면 운모를 단운모와 복운모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7차 E교과서'는 운모를 '기본 운모'와 '결합 운모', 즉 단운모와 복운모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듯 '07 개정 교과서' 이후로는 이를 각각 '운모1'과 '운모2'로 지칭하고 '성조→운모1→성모→운모2'의 순서로 편제하였다. '07 개정 교과서'에서 '15 개정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그 비율을 보면 이러한 편제 순서를 채택한 교과서가 점점 많아짐을 알 수 있다. '07 개정 교과서'에서는 단지 1종 교과서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09 개정 교과서'에서는 2종이, '15 개정 교과서'에 이르러서는 4종이 이러한 편제 순서를 채택하였다. 이는 '성조+단운모'의 가장 간단한 음절부터, '성조+단운모+성모', '성조+복운모+성모'의 순서로 점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편제 순서이다. 이 또한 큰 변화로서, 교수·학습 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변화라 할 것이다.

이어서 발음의 편제 내용을 살펴보자. 교과서가 개정을 거듭할수록 발음에 관련된 학습 활동을 점점 더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첫째, 성조 표기에 관한 연습문제를 보자. '15 개정 교과서'는 성조 표기 규칙을 제시하고 이에 관련된 연습문제를 출제하였다. 그런데 다음의 예를 보자 (이선희 외 4인, 2018: 15).

그림1. 교과서 내 성조 표기 연습

발음 연습 : 1음절 단어 연습

선생님이 읽어 주는 단어를 듣고 따라 말하며 빈칸에 알맞은 성조를 써 봅시다.



‘15 개정 H교과서’는 성조 표기 규칙을 설명한 후 위와 같이 연습문제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성조를 표기하도록 제시한 동그라미의 위치를 눈여겨보자. 첫 번째 단어의 경우 주요 모음인 ‘u’ 위에 동그라미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성조를 주요 모음 위에 표기하게 유도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단어의 경우 ‘o’ 바로 위에 위치하여야 할 동그라미가 ‘n’에 걸쳐져 제시되었다. 더욱이 세 번째 단어의 경우 ‘u’ 위에 위치하여야 할 동그라미가 ‘h’와 ‘u’ 사이에 제시되었다. 성조는 운모에, 그 중에서도 주요 모음에 표기한다. ‘15 개정 H교과서’ 역시 “성조는 운모 위에 표기하며, ……(이선희 외 4인, 2018: 14)”라고 성조 표기 규칙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설명에 이어서 제시한 연습문제는 이러한 규칙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이런 연습을 진행하면 학생이 이후에 성조의 표기 위치를 염두에 두지 않고 표기할 수 있다. 연습문제를 설계할 때는 학생이 잘못된 훈련을 반복하여 학습한 지식이 곡해되지 않도록 출제 목적에 부합한 문항을 출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운모에 관한 설명을 보자. ‘7차 교과서’는 설명이 있는 경우 그 난이도가 매우 높다. 6종 교과서 중 오직 C교과서만이 발음 방법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예를 들어 ‘o’는 “발음할 때 입은 반쯤 열리고, 혀의 뒤쪽이 수축되며, 혀끝은 아랫니의 아래쪽으로 향하고, 두 입술은 약간의 원을 만들지만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근육은 결코 긴장하지 않으면서 내는 발음이다(송창기 외 1인, 2002: 15).”라고 설명하였다. ‘e’는 “발음할 때 입은 반쯤 열리고 혀의 뒤가 수축되면 혀바닥 뒤가 반 정도의 높이로 올라가 입 가장자리가 양쪽으로 당겨지면서 나오는 소리이다(송창기 외 1인, 2002: 15).”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15 개정 교과서’의 경우 그 설명이 다음과 같이 매우 단순해졌다.

표7. ‘15 개정 교과서’ 내 ‘o’와 ‘e’에 관한 설명³⁾

	o	e
F	‘오’와 ‘어’의 중간소리로 발음한다.	입을 약간 벌리고, ‘으’와 ‘어’의 중간소리로 발음한다.
H	우리말의 ‘오’와 ‘어’의 중간 정도로 발음해 봅시다.	입을 반쯤 벌린 상태로 우리말의 ‘으’에서 ‘어’로 이동하는 느낌으로 발음해 봅시다.
I	우리말의 ‘오’와 ‘어’의 중간 소리로 발음한다.	입을 반쯤 벌리고 우리말의 ‘으어’에 가깝게 발음한다.
J	우리말로 ‘오’로 발음하다가 ‘어’로 바꾸어 내는 소리	우리말로 ‘으’로 약하게 시작하여 ‘어’로 바꾸어 내는 소리

설명이 전반적으로 쉬워졌고 모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설명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워 학습의 난이도는 낮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발음의 정확성이 저하될 수 있다. 그 설명을 보면 ‘o’는 ‘오’에서 ‘어’로, ‘e’는 ‘으’에서 ‘어’로 바꾸어 내는 소리라고 설명한 교과서가 있다. 그러나 ‘o’와 ‘e’는 단모음이므로 이렇게 입모양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특히 ‘e’를 “‘으어’와 가깝게 발음한다”라고 설명한 것은 복모음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완전히 잘못된 설명이다. 朱川(1997: 106-107)은 단모음을 발음할 때 입모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하며 혀의 위치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중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단모음을 발음할 때 이중모음처럼 발음하는 오류를 자주 범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상술한 교과서들은 단모음을 이중모음으로

3) 11종 ‘15 개정 교과서’ 중 4종 교과서만이 단음모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출처는 각각 다음과 같다. F교과서(유성진 외 6인, 2018: 14), H교과서(이선희 외 4인, 2018: 10), I교과서(이종민 외 5인, 2018: 17), J교과서(임승규 외 4인, 2018: 21).

설명하고 있어 오히려 학습자들의 오류를 부추길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습자의 오류 원인 중 하나인 교재의 오도(誤導) 현상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7차 B교과서'를 보면 "발음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입 모양과 혀의 위치가 변하면 안된다(박덕준 외 2인, 2002: 9)."라고 단모음의 특징을 정확히 설명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개정된 교과서에서는 단모음을 이중모음으로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재의 '흥미성(趣味性)'을 고려한다면 학습의 난이도가 쉬워졌으므로 좋은 변화라 하겠지만 교재의 '과학성(科學性)'을 고려한다면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판단된다.

표7을 보면 이러한 설명 방법 외에 한국어의 두 모음을 이용하여 그 중간 소리라고 설명한 교과서들도 적지 않다. 이 또한 비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일 뿐만 아니라 옳은 설명이라 하기 어렵다. '오'는 '오'와 '어'의 중간 소리, '에'는 '으'와 '어'의 중간소리라고 각각 설명하였다. 모음은 혀의 위치-상하, 좌우와 입술 모양에 따라 음색이 달라진다(陳阿寶, 2002: 17). 그런데 학생들에게 두 모음의 중간 소리라고 설명한다면 학생이 상하의 중간인지, 좌우의 중간인지 혀의 정확한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다. 학생들의 모국어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학습의 난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설명은 오히려 학습의 어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옳은 설명이 아니다. 중국어 '오'의 경우 원순음에 해당하는데 한국어 '오'는 원순음이고 '어'는 평순음이기 때문이다. 언어학적으로 모음은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음과 평순음으로만 나누어지기 때문에 원순음과 평순음의 중간 발음이라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다. '07 개정 교과서(심형철 외 4인, 2012: 15)'나 '09 교과서(신승희 외 5인, 2014: 17)'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설명을 제시하였는데 '15 개정 교과서'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개정 상의 '정체 현상'이라 하겠다.

셋째, 성모에 관한 설명을 보자. 운모와 달리, 모든 교과서에서 성모에 관한 설명을 제시한다. 발음위치에 따라 쌍순음, 순치음, 설첨전음, 설첨중음, 설첨후음, 설면음의 순서로 성모를 소개하는데 이 중 특히 설근음과 설첨후음의 설명을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과서별 두 개의 단운모에 관한 설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8. '15 개정 교과서' 내 설근음과 설첨후음에 관한 설명⁴⁾

교과서	설근음(g, k, h)	설첨후음(zh, ch, sh, r)
A	혀뿌리를 (여린)입천장에 가까이 대고 내는 소리	혀끝을 치켜세워 (센)입천장에 바짝 대어 내는 소리
B	혀뿌리를 입천장에 붙였다 떼거나 가까이 대고 발음합니다.	혀끝을 말아 입천장에 붙였다 떼거나 가까이 대고 발음합니다.
C	혀뿌리를 입 안쪽 천장에 붙였다 떼면서 발음합니다.	혀끝을 살짝 들어 올려 입천장에 붙였다가 떼거나 가까이 대면서 발음합니다.
D	혀뿌리를 들어 올려 여린입천장에 가까이 대며 발음한다.	혀끝을 말 듯이 하여 단단(한) 입천장에 붙였다 떼거나 가까이 대며 발음한다.
E	혀뿌리를 입천장에 붙였다가 떼거나, 가까이 대고 발음합니다.	혀끝을 말아 들어 올려 입천장에 붙였다가 떼거나, 가까이 대고 발음합니다.
F	혀뿌리를 (여린)입천장에 가까이 대고 내는 소리	혀끝을 들어 올려 입천장 중간쯤에 붙였다 떼거나, 가까이 대고 내는 소리
G	혀의 뒷부분을 입천장에 붙이거나 가까이해서 소리를 냅니다.	혀를 넓게 펴서 입안 중간 부분에 두고 소리를 냅니다.
H	'헉'하는 발음이 나오는 부위에서 가래를 뱉듯이 발음해 봅시다. 목구멍 안쪽에서 소리를 내어 봅시다.	혀끝을 살짝 들어 올려 발음합니다. zh와 ch는 '헉'이라는 발음을 할 때 혀끝이 닿는 입천장 부위에 혀끝을 살짝 대었다 떼며 발음합니다.
I	혀의 뒤쪽, 즉 목젖 쪽을 입천장에 가까이 대고 내는 소리	혀끝을 살짝 말아, 혀의 앞부분을 윗니의 잇몸보다 더 뒤쪽으로 들어올리며 내는 소리
J	혀뿌리를 입천장 뒤쪽에 붙였다가 떼거나(g,k), 가까이 놓고(h)내는 소리	혀끝을 딱딱한 입천장 앞부분에 붙였다가 떼거나(zh,ch), 가까이 놓고(sh,r)내는 소리
K	혀뿌리를 들어 올려 입천장 뒤쪽의 연한 부분에 가까이 대고 발음합니다.	혀끝을 치켜세워 으르리면서 입천장에 붙였다 떼거나 가까이 대고 발음합니다.

설근음과 설첨후음은 모두 혀가 입천장에 닿는 소리이다. 그러나 두 성모는

4) 교과서별 출처는 다음과 같다. A교과서(김명화 외 3인, 2018: 14), B교과서(김성철 외 7인, 2018: 14), C교과서(박용호 외 5인, 2018: 20-21), D교과서(신승희 외 4인, 2018: 18), E교과서(심형철 외 5인, 2018: 17), F교과서(유성진 외 6인, 2018: 15), G교과서(이기훈 외 7인, 2018: 17), H교과서(이선희 외 4인, 2018: 12), I교과서(이종민 외 5인, 2018: 18), J교과서(임승규 외 4인, 2018: 22), K교과서(최병권 외 6인, 2018: 16).

혀의 부위와 입천장의 위치에 따라 그 음색이 다르다. 설근음은 혀의 뿌리가 연구개—여린 입천장—에 닿으며 나오는 음색이고, 설첨후음은 혀끝이 경구개—딱딱한 입천장—에 닿으며 나오는 음색이다(陳阿寶, 2002: 24). 따라서 교과서에 혀의 부위와 입천장의 위치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8을 보면 단순히 입천장이라고 설명한 교과서가 적지 않다. 또한 설첨후음의 경우 “혀끝을 말아”, “혀끝은 말 듯이”, ‘혀끝을 말아 들어 올려’ 등으로 설명한 교과서가 꽤 많다. 그러나 설첨후음은 혀끝이 경구개에 닿는 정도로 혀끝이 말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혀끝을 말아 올린다”는 표현은 옳지 않은 표현이다. ‘07 개정 교과서(심형철 외 4인, 2012: 14)’, ‘09 개정 교과서(심형철 외 5인, 2014: 14)’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설명을 제시하였는데 ‘15 개정 교과서(심형철 외 5인, 2018: 17)’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또한 개정 상의 ‘정체 현상’이라 하겠다. 특히 ‘15 개정 H교과서’의 경우 설근음은 “‘혁’하는 발음이 나오는 부위에서 가래를 뱉듯이”라고 상당히 주관적으로 설명하였다. 설첨후음은 “‘혈’이라는 발음을 할 때”라고 설명하였는데 설첨후음과 ‘혈’의 입천장 위치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 개정 교과서 내 발음의 편제 순서와 내용에 관하여 그 변화와 정체 현상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통시적 관점에서 교과서의 개정 양상을 보면 좋은 변화도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례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발음을 설명할 때 학습의 난이도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모국어의 유사한 발음과 대응하여 쉽게 설명하는 방식은 좋은 시도이다. 이는 교재의 ‘흥미성’을 고려한 좋은 변화라고 하겠다. 그러나 교재의 ‘과학성’도 더불어 고려하여 학생들이 잘못된 발음을 학습하지 않도록 좀 더 정확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3.2 네 가지 영역 간의 편제 순서와 내용

김미순(2015)은 ‘09 개정 교과서’ 5종을 대상으로 하여 단원 내 네 가지 영

역의 편제 순서와 영역별 역할을 비교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연구한 바 있다. 다만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동시대의 교과서만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본고는 그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7차 교과서'부터 현재 '15 개정 교과서'까지의 편제 순서와 그에 따른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에서는 저자가 서두에 '구성과 활용' 등의 제목으로 해당 교과서의 구성을 소개하였다. 본고는 이에 근거하여 '7차 교과서'에서 '15 개정 교과서'까지 네 가지 영역의 편제 순서를 각각 표로 정리하여 아래에 제시하였다. 차례대로 살펴보자.

표9. '7차 교과서'의 영역 간 편제 순서⁵⁾

구분	편제 순서	교과서
1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A, D
2	듣기 → 읽기 → 말하기 → 쓰기	C, E, F
	듣기 → 읽기 → 말하기 → X ²⁾	B

'7차 교과서'는 표9에서도 알 수 있듯이 6종 모두 네 가지 영역 중 '듣기 영역'을 맨 앞에 편제하였다. 7차 교과서의 편제 유형은 크게 '입말→글말(표9의 1번)'과 '이해→표현(표9의 2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어서 편찬된 '07 개정 교과서'는 9종 중 8종이 '7차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듣기 영역'을 맨 앞에 편제하였다.

표10. '07 개정 교과서'의 영역 간 편제 순서

구분	편제 순서	교과서
1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D, F, G, I
2	듣기 → 읽기 → 말하기 → 쓰기	A, B, E, H
3	읽기 → 듣기 → 말하기 → 쓰기	C

5) 표 안의 'X'는 해당 교과서에서 해당 영역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편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편제 순서에서 맨 마지막에 제시한 'X²⁾'는 쓰기 영역을 지칭한다. 해당 교과서에서 쓰기 영역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편제하지는 않았으나 연습문제나 부록에 '한자 쓰기'나 '문장 쓰기'를 제공한 경우를 의미한다. 표11~표13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표10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읽기 영역’을 맨 앞에 편제한 교과서도 출현하였다. 이러한 편제 방식을 채택한 교과서는 9종 중 1종으로, 약 11%에 불과하지만 ‘09 개정 교과서’에서는 그 비율이 증가한다.

표11. ‘09 개정 교과서’의 영역 간 편제 순서

구분	편제 순서	교과서
1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D
2	듣기 → 읽기 → 말하기 → 쓰기	B, E
3	읽기 → 듣기 → 말하기 → 쓰기	C
4	본문 → 말하기 → 듣기 → 읽기 → X ⁷	A

‘읽기 영역’을 맨 앞에 편제한 교과서는 5종 중 2종으로, 40%에 다다른다. 이 외에 주목할 점은 ‘말하기 영역’의 편제 순서이다. 말하기 영역의 편제 순서가 교과서마다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쓰기 영역이 누락된 교과서도 출현하였다. ‘15 개정 교과서’에서는 교과서별로 더욱 다양한 편제 순서를 보인다.

표12. ‘15 개정 교과서’의 영역 간 편제 순서⁶⁾

구분	편제 순서	교과서
1	듣기 → 읽기 → 말하기 → 쓰기	D, F, J
	X ⁷ → 읽기 → 말하기 → 쓰기	K
	듣기 → 읽기 → 말하기 → X ⁷	A, H
	X ⁷ → 읽기 → 말하기 → X ⁷	B
2	읽기 → 듣기 → 말하기 → 쓰기	I
3	읽기 → 말하기 → 듣기 → 쓰기	E
4	본문 (→ 실생활 활용)	G
5	듣고 말하기 → 읽고 말하기 → 듣고 쓰기	C

김미순(2015)은 《중국어 I》의 단원 구성을 보면 네 가지 영역의 편제 순

6) 편제 순서에서 맨 앞에 배치된 ‘X⁷’는 듣기 영역을 의미한다. 듣기 영역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편제하지는 않았으나 ‘단원 도입’에 듣기 활동을 제공한 경우이다. ‘15 개정 K교과서’와 ‘15 개정 B교과서’의 경우 ‘단원 도입’을 보면 각각 ‘듣고 준비하기’, ‘미리 듣기’라는 제목으로 듣기 활동을 제시하였다. 편제 순서에 맨 마지막에 배치된 ‘X⁷’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쓰기 영역을 별도로 편제하지는 않았으나 부록에 ‘한자 쓰기’를 제공한 경우이다. 이에 ‘?’를 추가하여 ‘X⁷’로 표기하였다.

서는 개정 교과서가 출간될 때마다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5 개정 교과서'에서는 그 편제 순서가 더욱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다. '7차 교과서'부터 '15 개정 교과서'까지 네 가지 영역 간의 편제 순서를 통합 정리하면 그 변화의 흐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표13. 개정 교과서의 네 가지 영역 간 편제 순서

구분	편제 순서	교과서				합계
		7차	07개정	09개정	15개정	
1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2	4	1	·	7
2	A 듣기 → 읽기 → 말하기 → 쓰기	3	4	2	3	12
	B 듣기 → 읽기 → 말하기 → X ²	1	·	·	2	3
3	A 읽기 → 듣기 → 말하기 → 쓰기	·	1	1	1	3
	B 읽기 → 말하기 → 듣기 → 쓰기	·	·	·	1	1
	C X ² → 읽기 → 말하기 → 쓰기	·	·	·	1	1
	D X ² → 읽기 → 말하기 → X ²	·	·	·	1	1
	E 본문 → 말하기 → 듣기 → 읽기 → X ²	·	·	1	·	1
	F 본문 (→ 실생활 활용)	·	·	·	1	1
4	듣고 말하기 → 읽고 말하기 → 듣고 쓰기	·	·	·	1	1
		6종	9종	5종	11종	31종

'7차 교과서'는 모두 '듣기 영역'을 맨 앞에 편제하였다. 그런데 '07 개정 교과서'부터는 '읽기 영역'이 선두에 편제된 교과서가 출현하였고 '09 개정 교과서'와 '15 개정 교과서'에서는 그 수가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개정상의 큰 변화라 할 것이다.

김미순(2015)은 교과서에서 대체적으로 본문을 '읽기 영역'에서 제시하는데 학습자는 이를 통해 언어지식을 학습한다고 서술하였다. 따라서 '읽기→듣기→말하기'의 순서로 편제된다면 학습자가 읽기를 통해 언어지식을 습득한 상태에서 다양한 듣기와 말하기 훈련이 가능하므로 중국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편제 순서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읽기'를 맨 앞에 편제한 방식은 좋은 변화라 하겠다.

그러나 '07 개정 교과서'에서는 매 단원 내 네 가지 영역을 모두 편제한 반면, '09 개정 교과서'와 '15 개정 교과서'는 오히려 '7차 B교과서'와 같이 쓰기

영역을 누락시킨 개정 교과서들이 출현하였다. 심지어 '15 개정 B교과서'의 경우는 듣기와 쓰기 두 영역이 누락되었다.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가지 기능의 통합적 훈련을 권장한다(교육부, 2015: 259).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 및 교수·학습 방법을 고려하였을 때 이렇게 듣기나 쓰기 영역을 배제하기보다 모두 제시하도록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어서 영역별 편제 내용을 살펴보자. 사실상 영역 간 편제 순서가 효율적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제 내용은 편제 순서와 상관없이 동일한 경우가 많다. 김미순(2015)은 '09 개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편제 순서가 다르더라도 듣기 영역은 학습을 위한 준비 단계로, 쓰기 영역은 한자 쓰기를 통해 언어지식을 복습하는 단계에 그쳤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영역별 활동 설계에 있어서도 기계적 연습만을 제시한 교과서가 많았는데 듣기 영역은 음소 변별, 말하기 영역은 치환 연습, 쓰기 영역은 한자 쓰기 등 획일화된 양상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15개정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자.

앞서 제시했듯이 동일한 저자가 개정 교과서의 편집에 여러 차례 참여하였는데 그 중 하나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표14. 동일 저자의 네 가지 영역 간 편제 순서

교과서	영역	저자	출판사
07개정	듣기 → 읽기 → 말하기 → 쓰기	심형철 외	시사
09개정	읽기 → 듣기 → 말하기 → 쓰기		
15개정	읽기 → 말하기 → 듣기 → 쓰기		

심형철 외는 세 차례에 걸쳐 개정 교과서를 출판하였는데 '듣기' 영역이 점점 뒤로 편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07 개정 교과서'에서는 제일 앞에, '09 개정 교과서'에서는 두 번째로, '15 개정 교과서'에서는 세 번째로 편제되었다. 반면 '쓰기 영역'은 일관적으로 마지막에 편제하였다. '15 개정 교과서'에서 이 두 영역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보자(심형철 외 5인, 2018: 102-103).

그림2. 1종 '15 개정 교과서'의 듣기와 쓰기 영역



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듣기와 쓰기의 성취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2015: 251; 255).

(1) 듣기

- [12중 I-01-01] 발음을 듣고 성모, 운모, 성조를 변별한다.
- [12중 I-01-02]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의미를 파악한다.
- [12중 I-01-03] 기초적인 의사소통 표현을 듣고 의미를 파악한다.
- [12중 I-01-04] 간단한 글이나 대화를 듣고 내용을 이해한다.

(4) 쓰기

- [12중 I-04-01]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한어병음이나 한자로 정확하게 쓴다.
- [12중 I-04-02] 낱말이나 간단한 표현으로 정보를 기입한다.
- [12중 I-04-03] 낱말의 용법과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을 작성한다.
- [12중 I-04-04] 주어진 상황에 맞게 간단한 글을 작성한다.

www.kci.go.kr

그러나 '15 개정 교과서'에서는 듣기 영역과 쓰기 영역 모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의 첫 번째 항목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2를 보면 듣기 영역은 학습을 위한 준비 단계로, 쓰기 영역은 한자 쓰기를 통해 언어지식을 복습하는 단계로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15 개정 교과서'의 읽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을 보자(심형철 외 5인, 2018: 100-101).

그림3. 1종 '15 개정 교과서'의 읽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



그림3을 보면 말하기 영역에서는 치환 연습만을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읽기와 말하기의 성취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교육부, 2015: 254; 253).

(3) 읽기

[12중 I-03-01] 한어병음이나 한자로 표기된 낱말이나 문장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12중 I-03-02] 문장이나 간단한 글을 읽고 의미나 정보를 파악한다.

[12중 I-03-03] 대화문이나 짧은 글을 읽고 주제나 요지,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2) 말하기

[12중 I-02-01] 낱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듣고 따라 말한다.

[12중 I-02-02] 기초적인 의사소통 표현을 발음에 유의하여 말한다.

[12중 I-02-03] 개인 및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을 듣고 상황에 맞게 대답한다.

[12중 I-02-04]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간단한 대화를 한다.

결론적으로 '15 개정 교과서'의 듣기, 말하기, 쓰기 영역에서 김미순(2015)이 제시했던 문제점이 여전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선할 여지가 있는 정체 현상이라 하겠다.

상술한 바를 종합 정리하면 네 영역 간의 편제 순서에 있어서 개정 양상을 보면 좋은 변화도 있었으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사례도 있었다. 영역별 편제 내용에 있어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네 영역을 편제할 때 통합 수업의 특성을 고려한 편제 순서를 채택하여야 하며 영역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유의미학습을 고려하여 영역별 내용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교재의 '체계성(系統性)'을 좀 더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본고는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연이어 출간된 '7차 교과서', '07 개정 교과서', '09 개정 교과서', '15 개정 교과서' 내 발음 및 네 가지 영역의 편제 방식을 통시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편제 순서 및 그에 따른 편제 내용

에 있어서 그 개정 양상을 파악한 결과 좋은 변화도 있었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례도 있었다.

우선 발음의 편제 순서에 있어서 성모, 운모, 성조 중 성조를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은 좋은 변화라 하겠다. 발음의 활동이 다양화된 점도 좋은 변화이다. 그러나 편제 내용에 있어서는 학습의 난이도는 낮아지고 교재의 흥미성은 향상된 반면, 교재의 과학성은 저하되었다.

다음으로 네 영역의 편제 순서에 있어서 읽기 영역을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좋은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듣기나 쓰기 영역을 편제하지 않은 교과서가 있어 통합수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성이라 하겠다. 편제 내용에 있어서는 영역별 유의미학습을 위한 활동이 여전히 많지 않아 개선할 여지가 있다. 또한 편제 순서에 따른 영역 간 유기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재의 체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교과서가 개정되었으므로 '7차 교과서'보다 '07 개정 교과서'가, '07 개정 교과서'보다 '09 개정 교과서'가, '09 개정 교과서'보다는 '15 개정 교과서'가 그 구성이나 내용 면에서 더 우수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은 앞으로도 개정 고시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어 I》도 개정 편찬될 것이다. 더 좋은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이전 교과서의 장단점을 가감 없이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개정 교과서의 좋은 변화는 고수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1997. <<http://www.ncic.re.kr>>.
 _____,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07.
 _____, 《고등학교 선택과목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http://www.kice.re.kr>>.

- _____,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11.
- _____,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15.
- 김미순,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내 네 영역의 편제 순서와 그에 따른 내용의 적합성 고찰>, 《중국어문학지》 제53집, 2015.
- 김민주, 《현행 고등학교 《中國語 I. II》 교과서 내용구성 비교분석 - 7차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 김행신,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중국어 I 교과서 분석》,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 노경옥, <한·미 고등학교 중국어 교재 비교 연구>, 《중국어교육과 연구》, Vol. 8, 1-27,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08.
- 맹주억, 《맹주억 교수의 중국어 발음》, 서울: 동방미디어, 1998.
- 박성애, 《현행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배선영, 《7차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I 분석》,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이경아, 《현행 고등학교 중국어 I 교과서 비교연구: 제7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 임봉조, 《2009 개정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고등학교 《중국어I》 5종 교과서 비교·분석》, 동국대학교, 2016.
- 최주희, 《제 7 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중국어 I 교과서 분석》, 忠南大學校 教育大學院, 2002.
- 陳昌來, 《對外漢語教學概論》,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5.
- 陳阿寶 主編, 《現代漢語概論》,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2002.
- 李泉, 《對外漢語教材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6.
- 周小兵, 《對外漢語教學入門 (第二版)》, 廣州: 中山大學, 2009.
- 朱川, 《漢語語音學習對策》, 北京: 語文出版社, 1997.

<7차 교과서>

- 강식진 외 2인, 《고등학교 中國語 I》, (주)진명출판사, 2002.
- 박덕준 외 2인, 《고등학교 中國語 I》, 정진출판사, 2002.
- 송창기 외 1인, 《고등학교 中國語 I》, 민중서림, 2002.
- 이재돈 외 2인, 《고등학교 中國語 I》, (주)진명출판사, 2002.
- 임승규 외 1인, 《고등학교 中國語 I》, 시사중국어사, 2002.

한무희 외 1인, 《고등학교 中國語 I》, 부민문화사, 2002.

<07 개정 교과서>

김난미 외 2인, 《고등학교 중국어 I》, (주)박영사, 2012.

박덕준 외 4인, 《고등학교 중국어 I》, 천재교육, 2012.

박용호 외 5인, 《고등학교 중국어 I》, 넥서스CHINESE, 2012.

박홍수 외 3인, 《고등학교 중국어 I》, (주)교학사, 2012.

심형철 외 4인, 《고등학교 중국어 I》, 시사중국어사, 2012.

우인호 외 3인, 《고등학교 중국어 I》, 정진출판사, 2012.

임승규 외 4인, 《고등학교 중국어 I》, (주)다락원, 2012.

최규발 외 2인, 《고등학교 중국어 I》, 박영사, 2012.

최재영 외 3인, 《고등학교 중국어 I》, 천재교과서, 2012.

<09 개정 교과서>

모해연 외 4인, 《고등학교 중국어 I》, 교학사, 2014.

신승희 외 5인, 《고등학교 중국어 I》, 천재교육, 2014.

심형철 외 5인, 《고등학교 중국어 I》, 시사중국어사, 2014.

이종민 외 6인, 《고등학교 중국어 I》, 정진출판사, 2014.

정상률 외 4인, 《고등학교 중국어 I》, 다락원, 2014.

<15 개정 교과서>

김명화 외 3인, 《고등학교 중국어 I》, (주)넥서스, 2018.

김성철 외 7인, 《고등학교 중국어 I》, (주)다락원, 2018.

박용호 외 5인, 《고등학교 중국어 I》, (주)동양북스, 2018.

신승희 외 4인, 《고등학교 중국어 I》, (주)천재교과서, 2018.

심형철 외 5인, 《고등학교 중국어 I》, 시사중국어사, 2018.

유성진 외 6인, 《고등학교 중국어 I》, (주)엔이능률, 2018.

이기훈 외 7인, 《고등학교 중국어 I》, (주)와이비엠, 2018.

이선희 외 4인, 《고등학교 중국어 I》, 파고다북스, 2018.

이종민 외 5인, 《고등학교 중국어 I》, 정진출판사, 2018.

임승규 외 4인, 《고등학교 중국어 I》, (주)지학사, 2018.

최병권 외 6인, 《고등학교 중국어 I》, (주)미래엔, 2018.

< Abstract >

The Change and Stagnation of Revised-textbook 《Chinese I》:
Focusing on the Part of Pronunciation and Four Language Skills

Kim, Misoon · Hwang, Jinyoung

The present study selects four editions of the high school textbooks 《Chinese I》 published from 2002 until today - total of 31 textbooks - as subjects of the study to discuss about the changes and stagnation in organization order and contents of the section of pronunciation and four language skills from diachronic viewpoint.

According to this national curriculum, the revised versions of 《Chinese I》 were published in 2002, 2012, 2014 and 2018 respectively. The current paper attempts to grasp the overall revision flow of the revised textbook from the diachronic viewpoint. The result shows that in terms of the order of organization, there were numerous attempts considering the efficiency of learning. However, in the contents of organization, some points were not improved or revised yet.

The pronunciation parts were focused more on ease than the accuracy of the explanation, and the activities of the four language skills were still more mechanical exercises rather than meaningful exercises.

Following to the changing era, the national curriculum will be revised in the future, and revised version of 《Chinese I》 will also be published. Through these kind of evaluation, the improvement of the revised textbooks should be continued, and the points of regression and the stagnation must be corrected.

Key Words: Textbook Analysis, Korean High School Chinese Textbook, Pronunciation, Four language skills, Order of Organization, Contents of Organizatio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계재확정	출간
2018. 7. 31	2018. 8. 10	2018. 8. 10	2018. 8. 23	2018. 9. 30

